“열심히 일해 아파트 사서 광주 정착했으면…한국서 축구선수·피아니스트·의사 되고파요”

한국서도 장사하고 싶어
홍 울라즘 (33)

한국에 입국 한지는 2달 정도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앞으로는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장사를 해보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합격 할거에요
안젤리나 (16)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한국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고 한국말공부도 열심히 하여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난 키르기스 경찰…사업가 될 것
서블라디미르 (30)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경찰이었습니다. 현재 비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업도 해보고 싶고 무역관련 회사도 다녀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바느질 솜씨 발휘하고 싶어요
리 스비에따 (60)

우즈베키스탄에서 바느질을 했다. 내 바느질 솜씨는 유명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다. 한국에서도 내 솜씨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리사 되어 레스토랑 차릴 것
김 제나 (19)

요리에 관심이 많고 졸업 후에 요리학원에 다니면서 요리를 열심히 배워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다. 언젠가는 내가 직접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다.

음대 진학 음악가 되고 싶어요
잔스타스 (20)

현재 음악에 관심이 많고 관련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음악대학에 가서 음악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에 좋은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가족 모두 한국에서 살았으면
그레고리

한국은 생활하기 참 좋은 곳 같다. 하지만 종종 집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다. 그럴 때 마다 다시 돌아가고 싶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 함께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데려올 것이다.

열심히 일해 가족 데려올 것
슬라바

종종 집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다. 그럴 때 마다 다시 돌아가고 싶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 함께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데려올 것이다.

일자리 많고 친절한 광주 좋아
문 베체슬람 (52)

우즈베키스탄 보다 일자리도 많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 오지 못한 가족들이 보고 싶다.

그림 포기했지만 현재 만족
루시아 (50)

자국에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일하고 있다. 현재에 만족하고 계속 일하고 싶다.

난 디자이너…패션공부 할 것
주 라리싸 (34)

저는 평소 옷을 좋아합니다. 여자로써 예쁜 옷과 악세사리를 보면 저도 모르게 눈이 갑니다. 앞으로도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저버리지 않고 패션 공부를 하겠습니다.

친절한 한국 오래 살고 싶다
김 빅토리아 (32)

밝고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의 가족들과 가정을 꾸려 나가며 한국에서 오래도록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은 친절하고 인심이 좋습니다.

고려인도 귀화 허용해야
조 이리나 (55)

우즈벡에서 방사선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재미동포들처럼 고려인들도 마음껏 고국을 방문하고, 원하는 사람은 귀화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낯선 한국 영원히 살고파
김 아니타 (14)

한국에 왔다는 게 아직은 실감나지 않는다. 신기하고 낯설지만 한국에 왔다는 자체가 나에겐 큰 의미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 한국에서 살고 싶다.

아들이 한국 가정 꾸렸으면
장 알렉산드로 (35)

지금처럼 계속 지내고 싶고 아이가 한국문화를 잘 받아서 한국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잘 성장해서 한국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한국말 빨리 익히고 싶어요
천 드미트리 (19)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한국말을 빨리 숙달하고 익숙해져서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이 꿈입니다.

난 학교 반장…학교생활 즐거워
김 콘스탄틴 (19)

현재 학교에서 반장을 맡으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 친구들과 나의 앞날에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지금의 바램이다.

고려인들 기억해 주세요
올랴

조국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희생자들인 국군포로와 고려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주길 바란다.

강제이주 아니면 우리도 한국인
꼴랴

한국에 와보니 계속 한국에 살고 싶어 졌다. 만약 우리 고려인들이 강제이주를 당하지 않고 원래 고향이었던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었 더 라면 어땠을지 상상을 해본다.

고려인 친구들 아프지 않았으면
마리나

추운 겨울이 다가왔다. 우리 고려인들은 아침 일찍이 일을 하러간다. 우리 고려인 친구들이 추운 겨울에 다치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중앙아시아 보다는 안춥다.

아름다운 자연 고국은 멋져요
김 에드와르 (50)

조국에 와서 모든 것이 좋다. 그중에서 산과 바다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 왜 할아버지께서 늘 고국을 그리워하셨는지 정말 실감한다.

일자리 준 광주 사랑합니다
유 위따르 (64)

한국정부와 광산구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크다. 이렇게 일자리도 주고 우리 고려인을 잘 받아줘서 고맙다. 사랑합니다.

백종원씨 같은 요리사가 꿈
김 블라디미르 (29)

러시아에서 저의 직업은 요리사였습니다. 한국 요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요리사 '백종원'씨처럼 예쁜 아내를 얻어서 평생 요리를 해주고 싶습니다.

악착같이 돈 벌겠습니다
장 스욤나 (32)

현재 공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도 많지만 그 만큼 더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램입니다.

음대 진학 피아니스트 될 것
김 율리아 (16)

저는 피아노를 너무 좋아합니다. 고려인 4세 피아니스트 '스타니슬라브 헤가이'처럼 고국 대한민국 음대를 나와 유명 피아니스트가 돼 고려인을 알리고 싶습니다.

돈 벌어 고향 정착이 꿈
예브게니

고향이 그립기도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착실히 돈을 많이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하는 게 꿈입니다. 그때는 한국과 광주가 많이 그리울 겁니다.

요리엔 자신…요리사 될 것
최 안드레이 (43)

저는 요리사가 되어서 우리 우즈베키스탄 음식과 한국음식을 합쳐 퓨전요리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성질 까다로운 제 동생도 제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한국어 능통해지는게 당면 과제
김 올가 (16)

면 미래의 목표는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한국어 공부에 전념하여 한국에 잘 적응하고 원어민 수준으로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을 목표입니다.

영어선생님 되고 싶어요
최 알렉산드라 (19)

영어를 전공하여 미래에는 영어선생님이 되고 싶다. 한국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조금 있다면 편견없이 외국인들을 착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 행복하고파
고루슬란 (39)

현재 회사에서 통역을 맡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방송국 기상캐스터로 일 했습니다.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겨울 버티면 행복한 봄이
나쟈

힘들지만 고국 한국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같다. 이 추운 겨울만 버티자! 그러면 따뜻한 봄이 온다. 그 봄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에 있을 따뜻한 상상을 해 본다.

광주 지리 잘 알고싶어
발릿나

한국에 왔다는데 아직은 실감나지 않는다. 서툰 한국말과 서툰 광주 지리,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좋다.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광주 지리도 잘 알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열심히 일해 광주서 집 살 것
김 유진 (38)

잘 모르지만 광주가 좋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지금도 좋지만 러시아 그리워
나타샤 (50)

지금도 너무 좋지만 러시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살고 싶다. 돈을 모아 돌아가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아파트 한채 사서 가정 꾸릴 것
유 올가 (29)

이주 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를 생각하면 현재는 너무 행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 한 채를 사고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고려인들 한국어 잘 가르칠 것
김 엘레나

지난 여름 다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졌다. 고려인마을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가르쳐야 겠다.

유명한 한국 축구선수 되고 싶어
키릴 (15)

새날학교 고등학교과정에 다니고 있다. 한국어를 잘 한다고 칭찬 받는다. 실은 축구를 더 잘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한국서 식당 차릴 겁니다
리 안드레이(25)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요리를 조금씩 배웠습니다. 비자문제만 해결된다면 한국에서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요리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국어 어렵지만 열심히 할 것
차 나지야 (45)

최근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모국어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항상 하고 싶었던 공부입니다. 한국어는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서 의대 진학 의사 될 것
한 데니스 (19)

지금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졸업하고 나서 언젠가는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한국에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 노래 작사 해보고 싶어
안 스베틀라나 (16)

한국 노래 가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에는 가사를 모르고 따라 불렀는데 그것이 한국말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빨리 저만의 가사를 써 보고 싶습니다.

광주 음식 너무 맛있어요
슬라바

광주가 좋은 이유는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아직 오지 못해서 한국과 광주의 좋은 점을 아직 느끼지 못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느끼고 싶다.

고려인 한국 동화 앞장설 것
다냐

한국에서 아직 우리를 한 민족으로 받아들여주기가 어려운가보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그 일에 앞장서서 나설 것이다.

우즈벡 가족들 많이 보고 싶어
비팔리

우즈베키스탄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한국에 왔다. 그곳엔 일자리가 없다. 한국의 생활도 즐겁지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보고싶다.

큰 부자 되고싶습니다
알렉산더 (50)

이제는 일을 안 해도 될 만큼의 부자가 되고 싶다. 광주에 와서 기쁘기도 하지만 일이 많아 피곤하다.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고파
최 비어탈린 (60)

한국어가 서툽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문적인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국의 옷은 모두 멋있습니다.

난 옷장사…한국 옷 최고
가르야트 (29)

저는 유쾌하고 쾌활합니다. 저는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의류장사를 하며 관리직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매 순간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한국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온 가족 광주행복 이루고파
황 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가족이 함께 광주로 왔습니다. 아이가 잘 성장해서 한국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석유회사 취업 돈 많이 벌 것
티무르 (15)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학교를 졸업한 다음 훌륭한 석유회사의 회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와 석유를 거래하며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아이들에 한국말 못가르쳐 미안
박나리 (37)

저희 부부는 금슬이 좋고 아이들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을 못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와주지 못해 아쉽습니다.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고파
최 예카테리나 (26)

제 꿈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는 한국에 여행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여 좋은 추억을 쌓고 가게 되어 기쁘고 저와 친척, 친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멀티언어 통역사 될 것
김 스베틀라나 (18)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완벽히 배워서 한국어와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에 모두 능통한 사람이 되어 훌륭한 통역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세계 제일 프로게이머 될 것
김 레오나르드 (18)

공부와 함께 카운트스트라이크 라는 슈팅게임을 열심히 해 그 게임의 전문가가 된 후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CS프로게이머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 알아주세요
놀라

우리 고려인들이 고향인 한국 두고 왜 그 먼곳까지 가게 되었는지 아는 한국인들이 많이 없다. 우리는 늘 한국을 그리워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광주 사람들도 날 좋아해주길
루다

한국에 와서 광주사람들의 진심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 좋고 광주가 좋다. 한국도 광주사람들도 나를 좋아해주면 좋겠다.

고국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삐제라

간혹 한국말 못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한글공부를 열심히해야한다. 나중에 꼭 한국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내 아들은 한국말 잘하게 하고싶다.

한국어·한국 차근차근 공부
스웨단 (33)

아직 한국에 대해 모르 것이 많다. 현재 일을 배우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고 한국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나아가고 싶다.

한국에 내 집을 짓고 싶어
티무르 (23)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며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한국에 제 집을 직접 짓고 싶습니다. 그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국어 공부 무역 하고싶어
레이이리나 (38)

앞으로 한국어공부를 많이 하여 금융, 무역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매 순간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한국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돈 많이 벌어 아파트 사겠다
강 로자 (30)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 한 채를 하고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전기기술 활용 부자되고 싶어
허 스타스 (32)

평소 공구를 만지고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기기사 자격증도 있고 전기 관련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전기관련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부자되고 싶습니다.

광주사람들 너무 친절해요
박 알렉산드르 (34)

저는 러시아에서 입국 했어요. 정착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 광주사람들은 너무 친절합니다.

돈 벌어 큰 아파트 살 것
채 안드레이 (32)

한국어공부를 열심히 하여 일상생활에 문제없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현재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을 모아서 큰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싶습니다.

한국서 외과의사 되는게 꿈
드미트리 (19)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추후에 의대에 진학한 후 많은 의학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외과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한국서 저널리스트 되고 싶어
알리나 (17)

대학에 가서 저널리즘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후엔 훌륭한 저널리스트가 되어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취재하고 보도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한번도 조국을 잊은적 없다
제니아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로부터 귀가 아프도록 한국 이야기를 들었다. 단 한 번도 조국을 잊은 적이 없다. 고려인 4~5세들도 한국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한다.

열심히 일해 우즈벡 돌아갈 것
스베따

나이도 어린 대학생분들이 우리를 위해 신문을 만들어준다니 너무도 고맙다. 우리 고려인들에 대한 관심이 반짝 관심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심이면 더 좋고 말이다.

고려인 잘 받아줘 고맙습니다
유 베로니카 (30)

한국정부와 광산구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크다. 이렇게 일자리도주고 우리 고려인을 잘 받아줘서 고맙다.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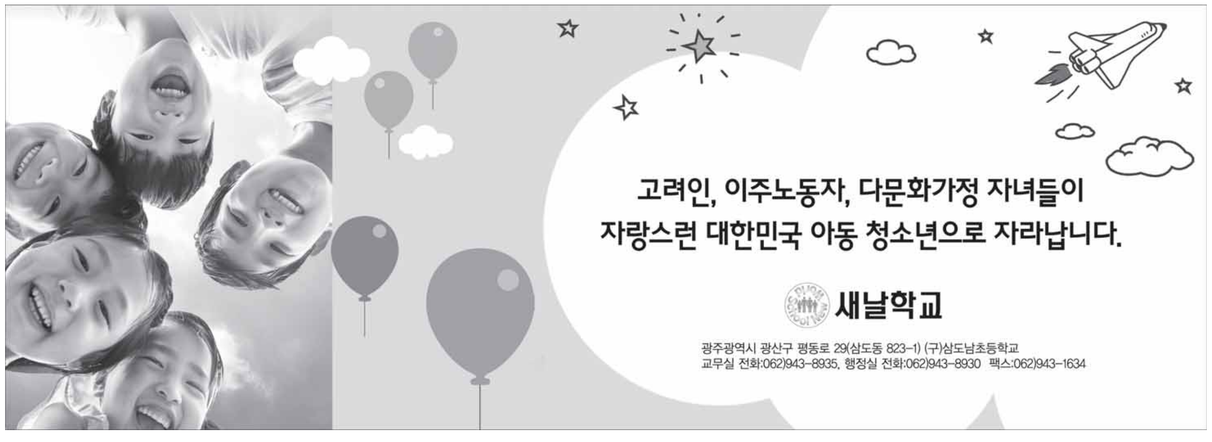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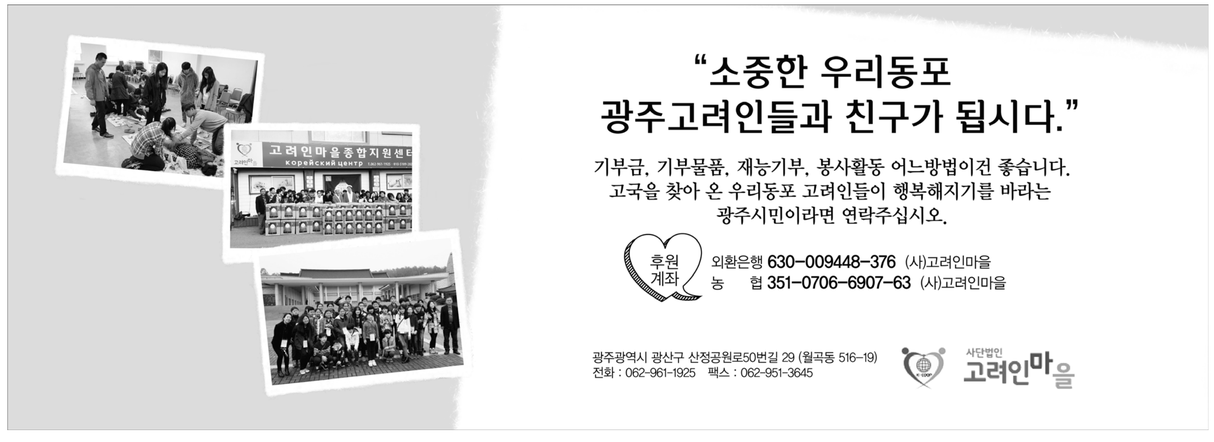
내가 산 차로 세계일주가 꿈
리 알렉스 (37)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자동차 경주선수였습니다.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돈을 축적하여 제가 산 차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실수 잦지만 보람찬 나날
나 가이얌나 (30)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냥 집안일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열심히 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미흡한 한국어 실력 탓에 실수도 하지만 한국에서 알하는 것이 보람찹니다.

아기와 함께 우리 가족 행복을
리 이리나 (35)

이주 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아기와 함께 더욱 행복하게 살고싶어요.

편집=딩커 학생기자